

작품 내용

제 목	감히 넘보지 못할 내 땀방울
내 용	손가락 끝에 었어둔 몇 글자 몇 마디면 쏟아지는 슬한 눈부신 작품들 앞에 선 고독함은 창작의 고통 뒤편으로 흘릴 눈물 대신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 주는 온기 한가득 빛줄기 더 가득한 복제 불가능의 내 심장 고유한 주파수라고 부르고 싶어져 나는 오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숨을 받아 적는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득바득 곁에 머물고 싶은 건 내 것을 잃거나 뺏긴단 생각보단 그저 이 서툰 주저함이야말로 나만이 가진 가장 나답고 나다운 비장한 아우성이라 목 놓아 울부짖을 뿐 깊어지는 두려움만큼 매달려 있을 청춘의 울타리도 무척 크다